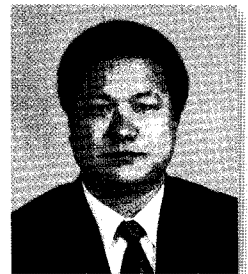


*Pourthiaea villosa var. villosa*

# 윤노리나무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Pourthiaea villosa var. villosa*.
- ▶ 한명 : 牛鼻木
- ▶ 일명 : わたげかまつ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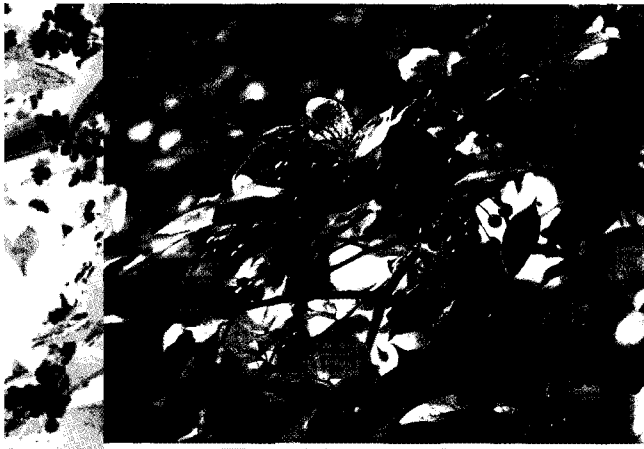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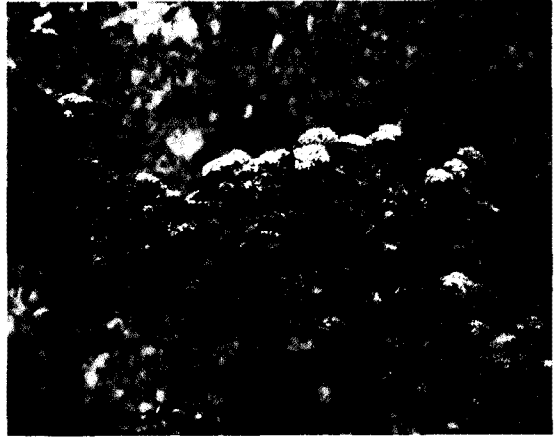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대외협력과)

윤노리나무의 줄기로 옷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윤노리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보다 줄기가 좀 가늘고 긴 것으로 소의 코뿔레를 만들었다 하여 한자 이름은 우비목(牛鼻木)이라고도 합니다. 가지가 단단하고 질긴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예전에는 쓸모가 많았던 나무입니다.

5월에 눈송이처럼 피는 하얀 꽃은 밀원이 많으며 가을에 붉은 단풍과 함께 익는 진주 같은 열매는 새들도 좋아하여 많은 새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중부 이남의 표고 50~1,200m에 자생하고 중국, 일본에 분포하는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수고 5~10m, 직경 10~20cm에 달한다. 내한성은 강하여 전국 어디서나 월동되며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고로쇠나무, 서어나무, 갈참나무, 회나무 등과 같이 혼생하며 중간층을 형성한다. 건조에는 보통이며 바닷가에서의 생장은 좋지 못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도 낮은 편입니다.

줄기는 밑에서부터 옆으로 자라며 몇 개의 줄기가 올라온다. 어린 가지에는 백색 털이 있으며 타원형의 피목이 있다. 잎은 어긋나고 도란형 또는 긴 도란형으로 점첨두, 예저이며 길이 3~8cm, 넓이 3~7cm로서 잎자루는 길이 1~5mm이다. 꽃은 양성으로 5월경에 피며 산방화서(繖房花序)는 지름 3~5cm로 백색 꽃이 달리고 백색 털이 뽀뽀하게 나 있으며 열매가 커짐에 따라 갈색 피목이 화경과 소화경에 생긴다. 꽃의



직경은 7~10cm이다. 꽃잎은 도란상 원형으로 수술이 20개이고 암술대는 2~4개로서 밑부분이 합쳐진다. 열매는 도란형으로 길이 8mm이며 9월에 빨강계 익습니다.

유사종으로 잎이 두껍고 도란형이며 엽병이 짧고 화서가 크며 열매의 직경이 12mm인 것을 떡윤노리 (var. *brunnea*), 잎이 얇고 점침두이며 화경과 가지가 가는 것을 좀윤노리(var. *coreana*), 잎, 꽃, 화서에 털이 적은 것을 민윤노리(var. *laevis*), 엽병이 짧고 화경과 어린 가지에 털이 많고 잎 뒷면에 백색털이 밀생하는 것을 털윤노리(var. *zollingeri*)라 합니다.

나무의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원, 학교, 공원 등의 작은 공간에 식재하기 좋으며 팔배나무, 마가목, 산사나무 등과 같이 혼식하며 꽃과 열매가 조화를 이루어 재미있다. 특히 가을에 빨강계 익는 열매와 단풍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열매는 새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새의 울음소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번식은 가을에 익는 종자를 채취하여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합니다. 종자로 번식된 나무는 7~8년 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